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국내 11호, 전남 5호 지정
'주낙' 전통어업방식 유지
복원·계승 예산 7억 확보

신안군은 흑산 홍어잡이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국내 11호, 전남 5호로 지정되었다고 9일 밝혔다.

전남 신안군의 흑산은 국내 홍어 전체 어획량의 80~90%를 차지할만큼 홍어 본고장으로 꼽힌다.

흑산 홍어잡이 어업은 흑산도 일대 연근해 어장에서 행해진다. 흑산도 홍어잡이는 전통어법 '주낙' 방식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한 개의 고리에 바늘 450개를 연결하고 미끼를 끼우지 않는 '걸낙'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주낙을 이용하는 전통어법 방식은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 흑산 홍어잡이 어업이 국가중



흑산 홍어잡이 모습 /신안군

요어업유산 국내 11호, 전남 5호로 지정되기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신안군은 지난 2019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신청을 해왔으나 홍어잡이어업은 어선척수 및 총허용어

획량의 물량부족으로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 최종심사에서 탈락했다.

신안군은 그동안 흑산홍어잡이 어선척수 증가 및 T.A.C물량 추가 확보 등 끈질긴노력 끝에 지난 7월 서류평가를 시작으로, 9월2일부터 3일까지 이어진 흑산도에서 2차 현장평가 실시결과, 최종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는 큰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신안군은 3년간 흑산홍어잡이 어업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흑산홍어 브랜드의 가치 향상은 물론,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흑산홍어잡이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매우 기쁘고,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을 통해 흑산홍어의 어족자원을 보전하는 한편, 어업유산을 지역관광 상품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 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안군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은 현재 신안갯벌 천일염업,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등 2개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흑산도 홍어잡이 어선은 16척이 조업중에 있으며, 2021년도 T.A.C 물량은 583톤이며, 2020년도 홍어위판액은 56억원이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metroseoul.co.kr

영덕군

14일 영덕 임시시장 개장

경북 영덕군은 오는 14일 영덕 장날 임시시장을 개장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영덕 임시시장은 (구)야성초등학교 부지에 건설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하수도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부지 정리 중에 있다.

오는 10일까지 컨테이너 47동 설치를 완료하고 14일부터 추석 대목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희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영덕군수)은 "임시시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해 상인들의 생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냉장고나 물품 진열대 등을 구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덕(경북)=김태우 기자



2021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포식 /경북도

이철우 "도내 세계유산 가치 확산"

(경북도지사)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포식

거리두기 고려 참석인원 최소화
선포 세리머니·미디어 퍼포먼스

경상북도 '2021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포식 행사가 안동화회마을에서 지난 8일 열렸다.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도기욱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문화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하회마을 부용대 특설무대에서 열린 선포식은 세계유산축전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선포 세리머니와 미디어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문화재

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축전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안동의 세계유산 인류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안동 하회마을을 비롯한 병산서원, 도산서원에서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축전은 도내 세계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향유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북에서 심신을 달래고 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수를 최소화한 가운데 조출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김종식 목포시장, 기업체 현장행정 잔걸음

삼진물산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김종식 목포시장이 9일 산정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삼진물산(참치통조림 생산)을 격려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피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경

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시도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체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 시장은 지난달에는 20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대양산단 소재 구이김 제조업체인 썬가리미를 격려 방문했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전남도, 관광개발사업 예산 151억 확보

남부권 관광개발 등 현안사업 탄력

전라남도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등 지역 관광개발 현안사업 국비 151억 원이 반영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반영 사업은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비' 33억 원, '오시아노 호텔&리조트 건설비' 108억 원이다.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은 전남·광주·부울경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남해안의 빼어난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해양관광거점 구축 프로젝트다. 현재 문체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올해 10월 기본구상이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기재부와 문체부에 용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2023

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역 특색을 살린 자체 발굴 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한국섬진흥원과 연계해 섬·해양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남도 섬 개발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단지 활성화를 선도적 역할을 할 관광호텔&리조트를 추진 중이며 2022년 착공 예정으로, 전남도는 원활한 건립 추진 및 마무리 준공을 위해 2022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관광호텔은 총 120실 규모의 객실로 부대시설인 인피니티풀, 레스토랑, 연회장 등을 갖춘 예정으로 총 사업비 410억 원을 들여 2023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확보한 예산으로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자원 활용 개발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해양, 생태, 문화 등 전남 특화자원을 활용한 전략을 마련하는 등 체류형 관광 거점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도 "섬진강 수해피해, 국가차원 보상해야"

지난해 섬진강댐 수해 원인 분석
환경부 등 피해액 전액 보상 건의

전남도는 지난해 섬진강 수해 피해 원인 분석 결과 정부의 댐 운영 실패가 주 원인인 경우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홍수기 섬진강댐 홍수여건은 방류량이 단기간에 9.4배 급격하게 증가하고 초기 수위는 185.2m로 예년 평균 179.2m보다 6m 높게 유지했다.

또 섬진강댐 계획홍수위인 197.7m와 홍수기 제한수위 196.5m의 차이가 불과 1.2m이며, 홍수 조절용량은 3000만t/s로 전국 다목적댐 평균의 40% 수

준이다.

전남도는 정부가 댐 관리규정을 12차례 개정하면서 홍수 조절량 추가 확보 미흡, 일시 과다 방류 등 댐 운영 미흡 및 홍수 조절 실패 등을 홍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시 하류 하천에 대한 예방적 투자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량은 확대 설계해 댐과 하천 통합관리 실패가 홍수의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자체 피해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수해 피해 책임을 수용하고 수해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상주시

힌다리새우 내륙 양식 성공

경북 상주시는 내륙인 상주 화남면 평온리에서 육상 양식업을 하고 있는 최경태씨가 심각목 보리새우과의 한 종류인 힌다리새우 양식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힌다리새우는 일반적으로 30퍼밀(p permillage·염분 농도의 단위) 정도의 바다에 서식하는 새우다.

최 씨는 그동안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바닷물을 희석한 후 10퍼밀 정도의 낮은 염분 농도에서 힌다리새우를 양식하는 데 성공했다.

최 씨는 "우수한 수질 정화 기술로 물을 밖으로 배출하지 않거나 일부 배출하더라도 염분 농도가 낮아 토양 등의 오염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상주(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백양사 휴게소 검사소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운영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휴게소 주차장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도내 코로나19 확산세 및 전남관내 진입경로를 감안하여 전라남도와 해당 시군 보건소, 휴게소 운영업체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선정하여 설치되었다.

설치장소는 호남선 백양사(순천방향), 남해선 섬진강(순천방향), 서해안선 함평천지(목포방향), 영암-순천선 보성녹차(영암방향)휴게소다.

/전남=김태우 기자 ts7080@